

문화만개

문화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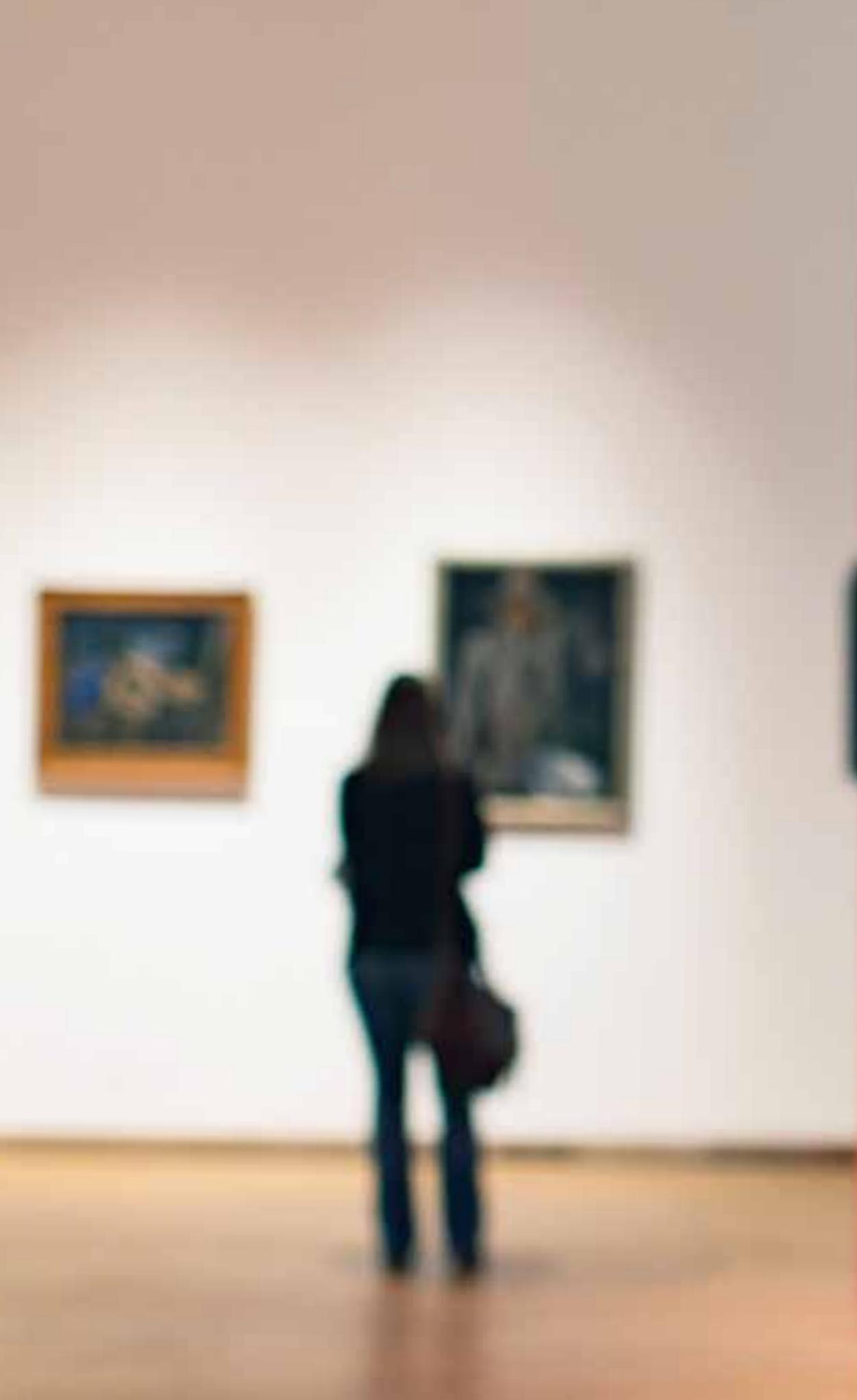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2020. WINTER
VOL. 12



문화만개 VOL. 12 2020. WINTER

www.dscf.or.kr





PROLOGUE

PROLOGUE

삶이란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가슴이 멍멍해지는 이 과정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해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질문이 많아진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하다.
나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의 삶은
예술이다.

타인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독 같은 고민이 예술을 만나면 공감이 되고,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예술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또 누군가에게 귀감이 된다.
어두운 시기에 만난 예술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된다.

PROLOGUE

달 서문화재단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다.

임진왜란 당시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우베선 의병장의 삶이
창작 뮤지컬을 통해 재탄생 되었고,
'DSAC 시그니처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인
'Rock on Stage 국카스텐 X 디어클라우드'는 지친 일상을 위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잠시 문을 닫았던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도
더 풍성해진 콘텐츠로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혼란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지금,
달서문화재단이 전하는 문화예술을 통해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더욱더 밝아질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본다.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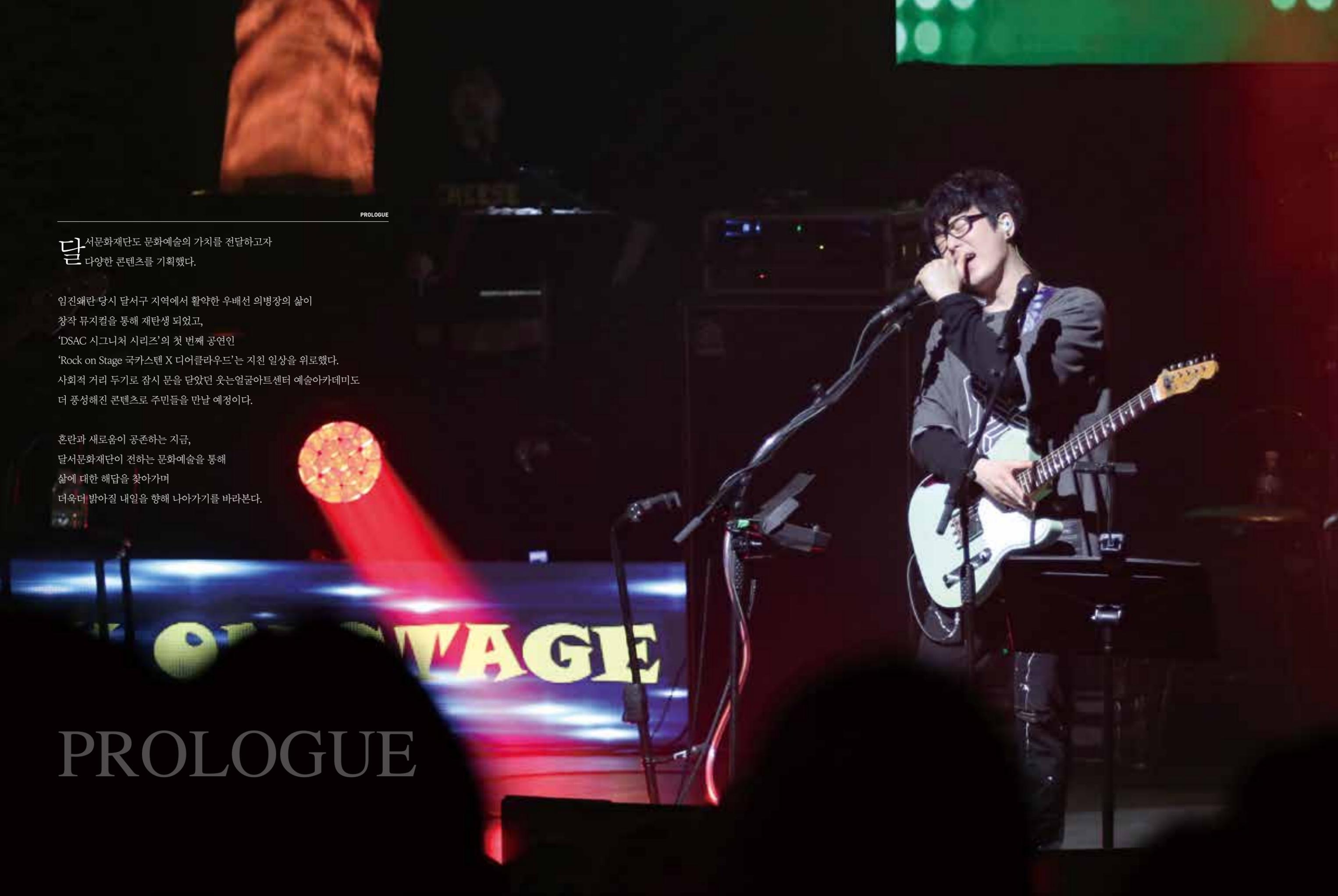




사진 제공 - 강선구 아트지 대표

CONTENTS

08 **눈플꽃**
2020 노벨문학상 수상자 루이스 글릭

기획특집

10 **Special Theme I**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영화계 풍경
_전찬일 영화평론가·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16 **Special Theme II**
디스코는 어떻게 다시 세상을 흔들었나
_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22 **Interview**
청춘이 빛나는 대구는 예술이다

Around

28 **위대한 여성 예술가**
세 여자
_남인숙 미술평론가·미학자

34 **우리의 음악**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소리가 다시 온다
_카라오 김.밴드 '더 플럼즈'

40 **달서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월곡의 정신

46 **슬픔과 위로**
나에게도 있는 특별한 능력

52 **Column**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의 음악
_차우진 음악평론가

58 '흰눈개비꽃'이 건네는 말
_양균원 시인,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Review

62 **공연**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만 허락된
국카스텐과 디어클라우드, Rock on Stage

64 **달서가족문화센터**
코로나 블루, 나를 돌아보며 삶=앓+읽기+쓰기

66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함께하는 시작, 나의 경력이 이어지다

Preview

68 **공연**
DSAC 프로덕션: II
창작뮤지컬 <월곡>

74 **예술아카데미**
2020 겨울 수강생 모집

2020년 VOL.12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인 '문화만개'는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문화의 향기를 이뤄가는
따뜻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인 이태훈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별관 2F 문화정책실
발행일 2020년 12월 2일
기획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김효진, 허정무, 박영빈, 김민경, 황성아
디자인/제작 한국애드

눈 꽃

루이스 클릭

내가 어떠한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 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출처 - 류시화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옮김, 수오서재(2020)

※ 루이스 클릭에 대한 소개와 '눈꽃' 해석은 'Column "흰눈깨비꽃"이 건네는 말'에서 이어집니다.

COVID-19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영화계 풍경

글 전찬일 영화평론가·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바야흐로 '코로나19'로 인해 날로 격변하고 있는 영화시장의 전반적 풍경에 대한 진단들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코로나19 시대의 영화 산업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한국영화산업 긴급진단 공동 토론회'가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KBDF)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공동 주최로 열렸다. 영화평론가 정민아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조교수는, 『한국예술연구』 2020 제29호에 시의적절한 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화관과 영화 산업 전망'을 게재했다. 10월 27일에는 산업조사 전문기관 이슈퀘스트가 A4 기준 560여 쪽의 방대한 시장 보고서 '방통융합시대의 뉴 미디어 플랫폼, 국내외 OTT서비스 사업전략과 시장 전망'을 발간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

메일을 통해 받은 이슈퀘스트의 보고서 요약을 전해본다. 근자들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현실이다. 그 변화의 으뜸 주역이 스트리밍에 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Over The Top)다. 그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OTT 기업들은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

(Youtube) 등이다. Untact보다는 Digital Contact로 일컬어져야 할 '비대면'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대거 증가하며 급성장을 보이고 있음도 널리 알려진 바 대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0년 세계 OTT 시장 규모가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한다. 930억 달러였던 2019년과 비교해 20% 가량의 성장이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1,4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로 한정해보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OTT 시장 규모는 7,801억

원으로 6,346억 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22%쯤 더 커질 것이란다. 국내 기업들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OTT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바,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폭(POOQ)이 연합한 웨이브(Wavve)가 2019년 9월 공식 출범해,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 2위 위상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세계적 미디어 회사 NBC유니버설(NBCU)과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초(超) 협력체'를 결성, 글로벌 OTT 동맹을 맺었다. JTBC와 CJ ENM(티빙)은 OTT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지원 필요

상기 저들만이 아니다. 정민아 교수의 원고 등에 자극 받아 필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영화의 운명'을 진단하고 제언했다. 10월 2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감독협회가 주관하는 협회 회원 대상 현장 영화인 온라인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0분 강의, 20분 휴식으로 총 6강을 진행했다. '1강 영화관객의 문제: 이탈과 애착, 그리고 세분화', '2강 멀티플렉스의 위기? 영화 플랫폼의 확대', '3강 영화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4강 영화 투자, 이대로는 안 된다!', '5강 영화 제작과 연출, 그 미래 cf. 케이스터디: 홍상수 & 고봉수', '6강 종합 제언 - 위기는 기회다! 약육강식, 무한경쟁에서 개방 협력과 공존, 상생으로...'였다.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별도의 강의안 없이 내달렸던 6강 중 이 원고에 직결될 몇몇 대목을 옮겨 보련다. 이런저런 보완을 곁들여.

우선 영화 관객의 문제. 확산시대 적잖은 관객들이 우리네 영화관을 '이탈'해 되돌아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2020년 국내 최종 극장 관객 수는 6천 5백 만 명쯤으로 예측된다는데, 2013년 이래 줄곧 2억 명 이상을 유지해왔고 <극한직업>을 필두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 <겨울 왕국2>까지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만 5편이었던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충격적으로 초라한 수치다. 위 토론회 발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월부터 10월까지 예년 대비 70% 이상 시장이 쪼그라 들었고, 상반기에만 2천억 원 가량의 적자가 났다.

10대부터 6·70대에 이르는 대한민국 전 연령층이 영화관을 찾는 빈도수도 확연히 줄어들 게 틀림없다. 이제 한국영화는 관객 통합이 아니라 예전처럼

세분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천만 영화'가 지금까지처럼 종종 출현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12월 24일 개봉된 <실미도>(강우석)가 2004년 첫 번째로 천만 고지를 넘은 이후 2019년까지, 한국영화 19편 외국영화 7편 포함 26편이 천만 클럽에 가입했으나, 향후로는 그런 행운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니 어느 모로는 한층 더 영화 오락·예술에 예의 '애착'을 견지하는 충성적 관객들도 존재할 것이다. 더러는 늘어나기도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패널들도, '볼 영화가 있다면 관객들은 분명 극장에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배급사와 극장들이 과감하게 틀을 깨고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는데,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멀티플렉스 감소, OTT 서비스 회원 수는 증가

그러나 국내 멀티플렉스의 감소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2019년 말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극장 수 500개관, 스크린 수 3,000개를 넘었다는데, 말이 산업이지 부동산 논리에 의거해 맹목적이면서도 무분별하게 늘어났기에 내리는 진단이다. 작금의 멀티플렉스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예정된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내 판단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 CGV는 10월 19일 관객 급감에 따른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3년 이내에 지역 상영관을 30% 정도 줄이고 일부 상영관은 당분간 주말에만 영업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영화산업 매출의 80% 전후를 차지해온 극장의 위기는 당연히 OTT로 대변되는 영화 플랫폼의 확대와 밀접히 연관돼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CGV의 발표 다음 날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을

공표했다. 2020년 전 세계 유료 회원이 2,810만 명 늘어 전년도 전체 증가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 3분기 회원 증가의 두 주도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우리나라 넷플릭스 유료 회원 수가 330만 명(9월 30일 기준)으로, 계정 하나에 의해 2명 이상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자 수는 7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스타 캐스팅에 집착하는 투자 관행도 달라져야

무작정 시나리오와 스타 캐스팅에 집착하곤 하는 투자 관행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두 영역의 중요성을 폄하·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외려 그 반대다. 내러티브나 출연진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또한 사실 아닌가. 단적인 예가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2005)다. <실미도>(2003, 강우석)와 <태극기 휘날리며>(2004, 강제규)에 이은 세 번째 국산 천만 영화.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감우성, 정진영, 강성연, 이준기에 이르는 수작의 네 주연 배우 가운데 과연 그 누가 당시 스타였던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준기는 신예에 지나지 않았고, 그 영화로 발견됐다. <왕의 남자>는 전작 <황산벌>(2003)로 입증된 이준익의 수준급 연출세공력이 아니었더라도 시나리오만으로 1천만 고지를 넘을 운명이었을까. 난센스다. 내 요지는 이것이다. 가능한 많은 <왕의 남자>와 조우하고 싶다는 것! 봉준호가 <기생충>(2019)의 역사적 쾌거 이후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역설한 바도 다채로운 시도를 향한 바람 아니었겠는가.

투자와 관련해 당장 떠오르는 영화는 지난 10월 15일 선보인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2020)다. 흥행 성적 40만 선에 그쳤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과 봉준호의 <기생충>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고픈 문제적 걸작이다. 그 문제작을 빚어낸 '괴물 신예'에게 최후의 기회를 제공한 이 땅의 투자사는 CJ ENM도, 롯데 컬처웍스도, 쇼박스도, NEW도 아니었다. 그곳은 상호도 외우기 쉽지 않은 마이너 투자사 (주)에이스 메이커무비웍스였다.

“노 리스크 노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는 <소리도 없이>가 없는 2020년의 한국영화는 더 나아가 한국 영화사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우리나라 60까지 살아오며 확실히 깨달은 교훈이 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이다. 어찌 모험 없이 봉준호가, 박찬욱이, 이창동이 출현할 수 있었겠는가. 또 다른 교훈도 있다. '위기=기회'라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영화계의 뉴노멀은 약육강식·무한 경쟁에서 개방 협력(Open Collaboration)과 공존, 상생이어야 한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서히 일지언정 꾸준히 내바람처럼 될 리도 없고, 말처럼 쉬운 목표점은 아니겠으나...

디스코는 어떻게 다시 세상을 흔들었나

글 김작가_ 대중음악평론가

올해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노래 중 가장 많은 음원 수익을 올린 노래는 무엇일까. 트와이스의 <MORE & MORE>? 잇지의 <Not Shy>? 둘 다 아니다. 박진영의 <When We DISCO>였다. 80년대 스타일의 노래가 당대의 걸그룹들을 꺾고 가장 큰 히트를 한 것이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마지막 수록처럼 여겨졌던 빌보드 핫100 1위의 영예를 안겨준 노래는 <Dynamite>였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있다. 디스코를 바탕으로 한다. 이 두 곡 뿐만 아니다. 팝 가수 두아 리파의 <Physical>, 위켄드의 <After Hours>는 올해 팝 시장을 흔든 작품들이다. 모두 디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디스코가 음악 시장의 주역으로 재부상했다. MTV는 이런 현상을 두고 '디스코 리바이벌'이라 정의했다.

디스코라는 말이 탄생한 곳은 1940년대, 2차 대전 무렵이다.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파리의 클럽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춤은 인간의 본능. 파리의 젊은이들은 밴드의 라이브 대신 음반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디스코텍(Discotheque)'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종전 후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댄스 문화의 한 형태로 시작한 디스코는 1960년대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적 특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를 근거로 활동하던 아이작 헤이즈, 윌리 허치 같은 소울 뮤지션들과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등의 핑크(Funk) 밴드들이 만들어낸 비트 중심의 음악들이 새로운 서브 컬처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기의 디스코는 일종의 하위 문화였다. 당시의 음악계는 비틀즈와 핑크 플로이드 등 백인 로커(Rocker)들의 시대였다.

디스코의 시작

히피 문화와 결합된 사이키델릭 록은 환각의 재현을 추구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탐험했다.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음악은 아니었다. '백인 청년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동성애자, 흑인, 라틴계들은 록 공연 대신, 자신들만의 공동체(클럽)에서 음반을 틀어 놓고 파티를 만들었다. 그들의 밤을 불태울 수 있는 디제이들이 등장했고, 이 디제이들은 리듬을 보다 강한 사운드로 틀면서 쾌락을 부추겼다. 이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리듬이 강조되는 음악들이 등장했고, 기존의 핑크보다 업비트 성향이

강한 음악들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그것이 디스코였다.

비주류 문화였던 디스코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 1977년 개봉한 존 트라볼타 주연의 <토요일 밤의 열기>가 그것이다. 디스코 문화를 소재로 한 이 영화의 OST에 수록된 비지스의 'Staying Alive' 'Night Fever'는 각각 4주와 8주간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존 트라볼타를 청춘의 심벌로, 비지스를 세계적 팝의 대세로 만들었다. 흑인 뮤지션들이 만들고 게이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소비하는 비주류 음악 디스코가 사회 전반에 쉽게 정착될 수 있던 이유는 비지스가 백인 뮤지션이었으며, 존 트라볼타가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전형적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앞서 엘비스 프레슬리, 훗날 에미넴이 각각 리듬앤블루스와 힙합을 대표하는 스타가 된 것 처럼, 디스코도 '백인 이성애자 남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주류로 흡입될 수 있었다.

심장 박동 같은 리듬, 라이브 중심의 문화

디스코의 탄생과 유행은 음악사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멜로디가 아닌 리듬을 중심으로 탄생한 최초의 장르라는 것이다. 디스코의 등장 이전, 대중음악의 근간을 다루던 블루스나 재즈도 특유의 리듬을 갖고 있지만 장르를 규정하는 주요 특성은 화성과 멜로디다. 블루스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기반으로 한 화성을, 재즈는 블루 노트라 불리는 스케일이 트레이드마크다. 반면 디스코는 화성적 특성 대신 리듬이 장르를 규정하는 요소다. 반복되는 8비트를 바탕으로 말발굽 소리 같은 베이스 라인이 디스코의 트레이드마크다. 리듬감을 강조하는 기타 연주도 디스코의 특징적 사운드다. 리듬은 최초의 음악이다. 인류의 조상이 나뭇가지로 나무토막을 두드리며 음악이 시작됐다. 우리 몸속에는 심장 박동이라는 리듬이 내재됐다. 그래서 리듬은 멜로디보다 직관적이고, 직관에서 기인한 디스코는 삼시간에 청년들의 몸을 요동치게 했다.

둘째, 디제이가 라이브에서 청년들의 밤 문화를 주도했다. 앞서 말했듯 청년들의 댄스 문화는 라이브 중심이었다. 하지만 디스코의 등장으로 인해 라이브가 아닌 레코드를 틀어주는 디제이가 클럽의 주인공이 됐다. 이는 밴드가 직접 무대에 서야만 하는 즉, 시공간의 제약이 필연적인 라이브 밴드와 달리 언제 어디서나 녹음된 음악을 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디제이는 뉴욕과 도쿄에서 동일한 사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걸 가능케 했다. 게다가 밴드 라이브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을 틀 수 있었기에 클럽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결과까지 낳았다. 클럽의 대중화로 한국에서도 80년대까지 클럽 보다는 디스코텍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을 정도였으니, 디스코가 문화에 미친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춤의 본질을 일깨운, '디스코 리바이벌'

70-80년대 문화였던 디스코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켄드부터 방탄소년단까지, 트렌드를 선도하는 뮤지션들이 디스코로 차트를 장악하고 50살 언저리의 박진영의 신곡에 한국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로의 회귀'다. 디스코를 계승했다 볼 수 있는 힙합과 알앤비의 비트는 점점 복잡해져 왔다. 1990년대 힙합인 닥터 드레나 투팍, 그리고 현대 힙합을 대표하는 칸예 웨스트와 Kendrick 라마를 비교해서 들어보자. 무엇이 더 직관적인가? 역시 댄스 뮤직으로 출발한 로큰롤 또한 그렇다.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생각해보라) 1950년대 10대들의 춤을 이끌어냈지만, 1970년대가 되면 사이키델릭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댄스'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졌다. 댄스 음악의 핵심인, 몸과의 직관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케이팝의 현란한 군무가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는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춤을 '보는 맛'에 있다. 음악 시장의 주류인 케이팝이 정작 10대, 20대가 다니는 댄스 클럽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케이팝의 비트는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반응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디스코는 직관적이다. '춤꾼'이 아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 1990년대 일렉트로닉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듀오 다프트 펑크는 2013년 정통 디스코를 차용한 <Get Lucky>로 빌보드와 그래미의 주인공이 됐다. 첨단 선봉에 있던 그들이 현대 댄스 음악의 근간이 된 리듬과 사운드를 제시하며 춤의 본질을 일깨운 것이다. 음악의 발전이 꼭 몸의 반응성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디스코가 다시 세상에 불러나온 이유다.

디스코는
화성적 특성 대신
리듬이 장르를 규정하는
요소다



청춘이 빛나는

글. 편집부 장보람 사진. 편집부 김도림

대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고충과 고민을 반영하고 들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왜 대구에서 활동하세요?' 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붙는다. 지겹냐고? 그렇지 않다.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다. 이 길을 꾸준히, 묵묵하게 걷고 있는 스트리트 댄서 강선구 'KBS 콘서트 문화창고 스피노프 - 2020 D루키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인디밴드 '당기시오'를 만나 각자의 장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대구는 **예술**이다.



사진 제공 - 강선구 아트지 대표



사진 제공 - 당기시오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 이게 바로 아트지!



강선구 스트리트 댄서, 아트지 대표

스트리트 댄스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던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강선구 대표는 스트리트 댄스가 어려운 시기를 풀어낼 수 있는 놀이로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스트리트 댄스는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를 열린 공간에서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 대표 역시 '열린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강선구 아트지 대표

Interview

강선구

중학생 때 춤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모여 방송 댄스를 쳤다. 당시 김수용 만화가의 '힙합'이라는 작품이 유명했다. 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만화책을 달도록 읽으며 생소한 춤 동작과 이름을 외우고, 따라했을 것이다. 강 대표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만큼 춤을 사랑했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했다.

“만화책에 나오는 비보잉 춤을 보고 연습했어요. 자연스럽게 스트리트 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정해진 틀이나 공간 없이 프리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죠.”

스트리트 댄스 중에서도 강 대표의 주 장르는 로킹이다. 파워풀하면서도 코믹적인 동작들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안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음악을 순간적으로 듣고 특징을 분석하여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뮤지컬리티'라고도

한다. 체조와 아크로바틱 같은 역동적인 동작도 참고한다. 대학원에서 공연학을 전공하며 공연 연출에도 관심이 생겼다. 다른 장르의 댄스 퍼포먼스를 많이 보고, 접하며 스트리트 댄스가 갖고 있는 한계를 느꼈다. 화려한 안무를 통해 관객들의 감탄을 이끌었던 것에서 순수 무용이나 예술을 통해 전달되는 주제의식과 사회적인 메시지를 결합하여 더 풍부하고,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구상해갔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연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우선인 거 같아요.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연의 질은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는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인터넷이라는 정보 바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았다. 춤에 대해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건 '덕후' 수준이었다. 오히려 서울에서 활동하는 댄서들보다 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활동도 하다 보니, 대구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대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낯선 비즈니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로 수익을 얻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연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할 후배들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다는 꿈은 현재 진행 중이다.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첨단 기술이다. 기술 발전과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체성을 주제로 현대 의복과 전통 의복을 입고 힙합 멜로디에 래핑 같은 판소리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구상 중이다. 강 대표가 구상하고 기획한 퍼포먼스는 공통점이 없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반대의 면을 보거나 다르게 바라본다. 관객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강 대표의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함께 즐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경험하고, 보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뤄내는 거죠.”



사진 제공 - 강선구 아트지 대표

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당기시오



인디밴드 당기시오

왼쪽부터 윤민영(기타), 박종석(베이스), 손진욱(보컬), 석병관(드럼·리더), 서우석(기타)

“원래 머리 길고 덩치 큰 분들이 마음이 어려워. 그런 분들이 고양이 키운다니까요.”

서우석(기타)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록을 한다고 하면

센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렇지도 않다. 록도 장르가 다양하다. ‘당기시오’가 추구하는 음악은 강렬한 사운드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Interview

당기시오

중학교 동창인 석병관(드럼·리더)과 서우석(기타)은 대구에서 스쿨밴드로 음악을 시작했다. 다른 멤버들과의 만남도 두 사람의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당기시오’라는 이름은 연습실 문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를 보고 정했다. 만남부터 지금까지 억지스러운 것이 없다. 음악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음악으로 표현한다. 멤버 전체가 록 계열의 음악을 선호한다. 당기시오의 음악 장르는 ‘포스트 그렌지’에 속한다.

석병관, 드럼·리더 “포스트 그렌지.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거 같아요. 헤비메탈과 같은 강렬한 사운드에서 서정적인 보컬과 멜로디가 어우러진 장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당기시오는 2015년에 포스트 그렌지 장르에서 유명한 한국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보컬 반을 추모하는 디지털 싱글 <Rope>로 데뷔했다. 올해 8월에는 약 3년 만에 미니앨범(EP) <Last Dream>을

발표하였고, 2020년 KBS프로그램 D루키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묵묵히, 또 즐겁게 음악 활동을 해온 당기시오에게 선물과도 같은 순간들이었다.

손진욱, 보컬 “당기시오 첫 번째 EP 수록곡 중에 <Depression> 라는 곡이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우울증이라는 뜻인데 정말 고된 하루를 보내고 썼던 가사예요. 일상에서 살짝 어두운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에 살을 더 보태서 가사를 쓰는 편이죠.”

밴드 내에서 작사를 맡고 있는 손진욱(보컬)은 가사가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절대 세드엔딩은 없다고 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어두운 감정의 깊이는 다르지만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서

1) EP란?

직경 17cm, 45회전으로 재생하는 레코드이며, 한쪽 면에 한 곡밖에 수록되지 않아 ‘싱글판’이라고도 불린다. 용어 설명 출처 -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내일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찬 내용으로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당기시오 음악을 특정 연령층이 아닌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 자체에서 추구하는 메시지가 정해진 콘셉트는 없지만, 앨범 트랙구성부터 제작까지 어떤 스토리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당기시오의 색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라고 인정받는 것이 큰 목표이다. 윤민영(기타)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뮤지컬’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고 했다.

석병관, 드럼·리더 “홍대를 한 번 가보자 해서 서울로 갔죠.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뮤지션도, 장르도 다양했구요. 그런데 애초에 밴드를 결성하게 된 목적이 많은 인기를 얻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다면 활동 무대가 어디가 되었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여전하다. 지방이라는 한계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밴드보다 공연을 한 경험이 더 많다. 창작 활동을 하는데 있어 대구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무대를 꿈꾸는 뮤지션들이 많다. 그들에게 대구에서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당기시오 멤버들은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밴드가 해체하거나 음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제대 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겠지만, 음악은 계속 할 것이라는 마음은 멤버 모두가 같다. 입대 전에는 D루키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곡을 싱글 앨범으로 발표하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바뀌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회전하고,
모든 것은 떠오르고 사라진다.”
- 프리다 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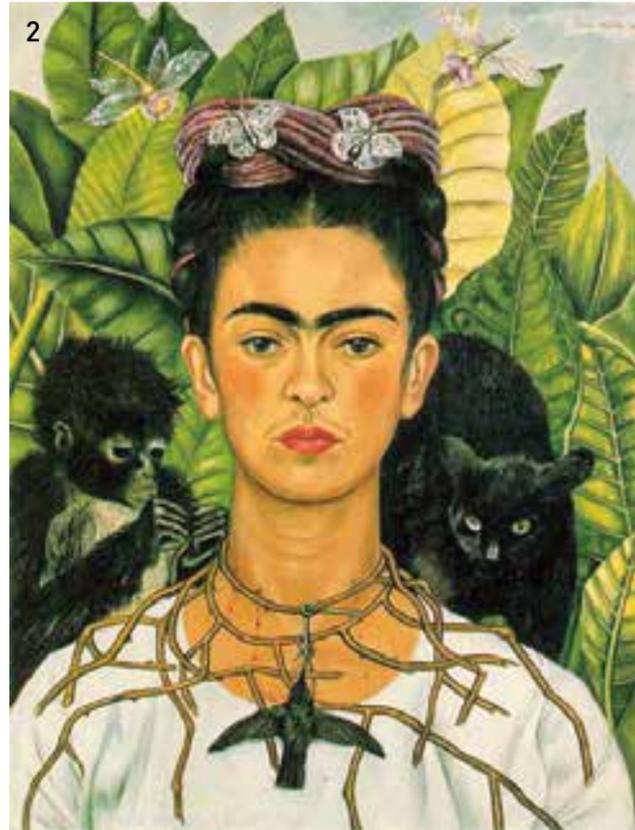
세 여자

글 남인숙_미술평론가·미학자

인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다. 그만큼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위대한 예술가도 많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를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여성' 예술가는 쉽게 떠오르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여성' 예술가를 만나야 한다. 이번 문화만개를 통해 세 명의 여성 예술가를 만나보자. <편집자 주>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프리다 칼로, 뿌리

프리다 칼로 드 리베라(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는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불린다. 본인은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가 묘사하는 풍경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가가 자신의 명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초현실주의라 할만하다. 프리다 칼로는 작품 143점 중 55점이 자화상으로, 자신을 가장 많이 그린 작가로도 유명하다. 작가를 따라다니는 숫자는 자화상의 숫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생애 35번의 수술, 3차례의 유산 등 삶과 죽음 사이의 머나먼 여정을 왕래하며 흔치 않는 삶의 질곡을 통과한 작가이기도 하다. 21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결혼과 2차례 이혼과 재결합 등 숫자만 따라가도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만큼이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 자화상 한 점을 보며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의 상상력을 따라가 보자.

프리다 칼로 자화상은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고 자신의 몸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여겨, 다른 형상을 신체에 담아 놓기도 한다. 작품에는 식물, 동물 등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프리다 칼로는 새를 특히 중요하게 다룬다. 교통사고 그리고 남편 리베라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언급한 프리다 칼로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자신을 등장시켜 대지와 우주의 생명 연대를 강조한다. 화면을 가득 메운 식물과 원숭이, 고양이,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상반신을 감고 있는 장식물은 자라나는 식물처럼 표현되어 있다. 곧 그의 몸을 감싸 버리고 말 것 같은 덩굴은 가시도 함께 자라 그에게 상처를 준다. 다른 전신 자아상의 경우를 보면(<뿌리, 1943>), 몸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와 대지를 덮으면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즐기와 이파리는 관객을 판타지 공간으로 이끈다. 원숭이와 함께 등장한 초상화의 경우,

배경의 식물과 목을 장식한 덩굴이 상호 반향하도록 하면서 거대한 식물의 숨결 속에 자신을 두고 있다. 머리의 장식물은 덩굴 이미지로 꼬여서 대칭의 방식으로 나비가 앉아 있다. 나비는 배경에서 날고 있는 잠자리와 상응하고 프리다 칼로의 몸은 자연 속의 한 마디가 되어 이중 삼중의 우주적인 연결이 강조된다. 무생물과 생물의 대비처럼 장식의 나비와 실제 잠자리라 할지라도 상호 우주적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없다. 원숭이, 고양이 그리고 목의 장식물 새, 이 삼각의 동물들이 프리다 칼로를 에워싸고 한

가운데에서 놓인 프리다 칼로는 우주의 숲에 돌아난 한그루 식물과 같다. 대지에서 피어나 거대한 운행에 참여하는 이런 생명체는 프리다 칼로가 뿌리내리고 있는 멕시코의 역사와 맞물린다. 식물 이미지는 혈연의 연대로서 멕시코의 역사와 전통의 계통수(系統樹)를 빚댄 것이 아닐까. 혈관, 핏줄, 식물 줄기 등은 동종의 뿌리로부터 상호 공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프리다 칼로는 고통의 극한에 나무로 변한 다프네처럼 멕시코 신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

에바 헤세, 무제
독창적인 작품영역으로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향을 준 에바 헤세(Eva Hesse, 1936-1970)는 34살에 생을 마감한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던 헤세에게 친구 솔 르윗은 “깊은 생각에 대한 근심은 버려요, 당신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생각하지 않고, 비워버리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당신은 할 수(DO) 있을 거예요.”라는 말을 담아 그림 문자를 만들어 보낸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그림시처럼 솔 르윗은 필체 자체에 단어의 의미를 담아 강력한

1 프리다 칼로 <뿌리, 1943>
2 프리다 칼로 <별새와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
3, 4 에바 헤세 <무제, 1960> 작품들





1

1 에바 헤세에게 보낸 친구 솔 르윗의 조언
 2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유디트>
 3 구스타프 클림트 <유디트>

메시지를 실은 것이다. 에바 헤세는 나치를 피해 유럽 몇 나라를 거쳐 뉴욕으로 오게 된 유대인이다. 인생의 시작부터 근본적인 존재의 위기감과 불안이 따라다닌 인물인 것이다. 어머니가 자살하고, 첫눈에 반한 남편과는 4년 만에 이혼한다. 그의 불운하고 불안한 전기(傳記)가 말해주듯 그가 다루는 재료는 라텍스, 고무, 풍선, 밧줄 등 양산되는 산업재료들이면서 쉽게 변하는 것들이다. 재료로 인해 결국 작품이 망가지고 사라진다 해도 에바 헤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예술도, 인생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녀 차별이 심했던 뉴욕화단에서 에바 헤세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석을 통해,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주역이 된다. 여기서 보는 두 점의 작품은 헤세가 유명해지기 이전의 작품이다. 휘몰아치는 선으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이후 에바 헤세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상들이다. 우연적인 형태의 동그라미나

밧줄 형태 혹은 실제 밧줄의 사용 등 우연과 즉흥의 모티프들이 초창기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초상화의 경우 다른 초상화에도 비슷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초상화의 인물은 세상에 대해 수동적이고 어딘가로 침잠하고 있는 듯하다. 형상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그의 기분은 꼭 찬 활기나 기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자리에 겨우 존재하는 사라지는 어떤 존재 같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와 겪은 불화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불안이 에바의 영혼을 잠식한 것이다. 매가리 없는 포즈와 색면으로 처리된 얼굴이나 머리카락, 보일 것 같지 않은 눈의 표현에서 헤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죽기 수년 전에 제작된 많은 대표작들에 비해 에바 헤세의 초기 작품과 초상화들에 에바 헤세 자신의 전기적인 사실들이 기록된 것은 아닐까 한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유디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 1593-1620)는 최근에 알려진 화가이다. 젠틸레스키의 존재 자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화가이다. 입이 딱 벌어지는 묘사력이나 표현력, 화면의 구도 등으로 보아 젠틸레스키는 바로크 풍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역동적인 인물의 구도와 빛의 흐름, 빛의 극명한 대비, 단축법을 구사하는 뛰어난 솜씨, 화면 전체에 감도는 동세(動勢)등 그는 자신이 다루는 매체에 통달한 듯하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카라바지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화가이다. 젠틸레스키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당대 누구도 자신의 딸을 따를 자가 없다고 했다 한다. 젠틸레스키는 당대에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것이다. 이런 작가를 어떻게 해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인지, 여성 작가가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누드 모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게릴라



2



3

걸즈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젠틸레스키가 들었더라면 후배들을 이끌고 위로는 물론 용기를 불어넣어 강인한 영혼으로 이끌어 주었을 것 같다.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에서는 그의 자신감과 전문가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진다. 그가 그린 '유디트'도 매우 명확한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와 비교해보면

관점이 당장에 드러난다. 젠틸레스키의 것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의 표정은 팜므 파탈 시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의 표정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클림트의 유디트는 화면 전면을 차지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만 그 특성은 성적(性的) 불가사의로서의 여성성이 강조되고 홀로페르네스 죽음의

순간은 다만 평온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젠틸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단죄하는 자로서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매우 뚜렷하고, 목이 뒤틀려 칼을 받는 홀로페르네스는 처참할 뿐이다.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드러내는 차이도 있지만 젠틸레스키 자체의 독자성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소리가 다시 온다
힙(Hip)해진
우리의 소리

글. 카라오 킴 밴드 '더 플럼즈'

여기 보소 동네 사람들! 고부랑 말로 된 노래만 듣던
젊은이들이 요즘은 우리 가락을 찾는다고 하니,
닐리리아 닐리리아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흥이 절로 나니 이것도 우리 것이
맞구나! 이 강산 삼천리 우리 가락 풍년이 오는구나!
오늘 한번 우리 소리로 힙(Hip) 하게 놀아보세!

홍대를 누비는 전통 음악 '전통'을 벗어나 '음악'이 되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가진 위압감과 고상함이 전통을 계승하려는 자와 전통을 즐기려는 자의 목을 옥죄 수 있다. 오히려 스스로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논할 때 '과거'와 '역사'에 큰 의미를 두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전통이란 '전하여 내려오는 양식'이다. 옛것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전시관에 예스럽게 모셔놓을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지고 닦게 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홍대 관객들의 환호가 우리네 전통 음악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전통 음악은 현대의 음악과 활발한 교류로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발전했다. 분명히 락, 팝, 일렉트릭 음악인데 민요나 판소리가 흘러나오고, 분명히 전통 음악인데 서양의 악기와 전자 음원이 우리의 가락과 리듬을 연주한다. 익숙한 듯 낯설고, 낯선 듯 익숙한 매력이 사람들을 열광케 한다.

예전에는 기성 음악가들이 실험적으로 일부분에 전통 음악을 접목했다면, 지금은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음악들을 접목하는 추세다. 전통 음악의 변질이 아니라 발전이며, 자연스러운 진보다. 오히려 불편한 '전통'이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음악'으로 회귀한 것이다. 덕분에 사람들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경계하지 않는 소리꾼 이희문

틀을 깨고 민요를 민요답게 부른다

민요란 말 그대로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부르던 노래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겨나 구전되던 것이다.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불러도 사실은 무방한 셈이다. 민요의 본질은 '자유분방함'일지도 모른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은 자유롭게 경계를 허물고 틀을 깬으로써 민요의 본질에 다가가는 소리꾼이다.

고주랑 명창을 어머니로 둔 덕에 민요와 소리꾼을 늘 가까이서 접했고, 우연한 계기로 이춘희 명창의 권유를 받아 20대 후반의 나이에 취미삼아 민요에 입문했다. 민요가 자연스레 구전되었듯, 이희문도 특별한 사명감이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민요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즐기려 시작한 민요였기에 '전통'이라는 틀과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틀을 허물수도 있었다.



사진제공_ 이희문 컴퍼니



사진제공_ 이희문 컴퍼니



사진제공_ 이희문 컴퍼니

이희문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민요에 새로운 옷을 입혀왔다. 2015년 밴드 '쌍쌍'을 결성해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민요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해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함께 경서도 민요 및 잡가를 재즈 문법으로 재해석한 '한국남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민요의 확장성과 수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허송세월, 조선아이돌 농놈과 함께 '오방神과 OBSG'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더욱 다양한 장르와 민요를 융합했다. 디스코, 펑키, 레게 등의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민요의 흥을 증폭시키며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대중문화로서의 민요를 선보이고 있다.

민요가 이희문을 만나 틀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민요다워졌다. 저잣거리가 클럽으로 바뀌었으니 음악의 형태도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유롭게, 또 자연스러운 민요가 진짜 민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제공. 잠비나이

**옛것으로 완성한 완벽한 새것, 잠비나이
활과 술대로 시공을 초월하다**

전기 기타와 베이스, 각종 이펙터들이 가득해야 할 록 페스티벌 무대에 해금과 거문고가 놓여진다. 여기는 '국악한마당이 아니라 록 페스티벌인데?'라고 의문이 드는 것도 잠시 강력한 락 사운드가 가슴을 울린다. 2010년 EP를 통해 데뷔한 밴드 '잠비나이'는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해금과 거문고, 피리로 이루어진 밴드다. 기본적인 락 밴드 구성에 해금과 거문고, 피리를 추가한 모양새이지만 결코 이 세 악기가 조연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애초에 기타와 해금, 거문고, 피리 4개의 악기 구성으로 시작된 밴드였다. 록에 국악기를 첨가하기 위해 결성된 게 아니라 국악기로 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셈이다. 해금과 거문고의 사운드는 잠비나이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고막을 자극하는 해금의 날카로움은 이펙터를 잔뜩 먹인 전기 기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며, 팽창된 거문고 소리는 그 어떤 악기로도 연출하기 힘든 긴장감을 부여한다. 여기에 묵직한

기타와 베이스, 드럼이 얹혀 지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훌륭한 록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포스트 락, 헤비메탈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잠비나이'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단 하나뿐인 잠비나이의 음악에 세계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2014년 북미 최대 음악 축제인 'SXSW'에 참가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락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 현대 공연예술 페스티벌' 무대에도 섰다. 2016년에는 대표적인 헤비메탈 페스티벌인 프랑스의 'Hellfest'에 진출했고 영미권을 대표하는 인디레이블인 '벨라 유니온'과 계약을 맺고 2016년 정규 2집을 전 세계적으로 발매했다. 현재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해외 페스티벌 무대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세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잠비나이와 함께 전 세계에 해금과 거문고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이다.



사진제공. ©우인제

**신명나니까 'Good!', 악단광칠
귀신은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놀리다**

황해도 무가는 조선시대를 훨씬 지나 고려시대의 무풍을 간직한 노래다. 한마디로 진정한 'K-POP'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황해도 무가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악단광칠'이다. 2015년 '광복 70주년에 결성된 '밴드'라 하여 악단광칠이라 이름 붙였다. 황해도 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무가와 서도 민요 등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활동 중이다. 자칫 무가라고 한다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무당'과 '굿', 그리고 '무가'도 엄연히 우리의 전통 문화다. 먹거리와

볼거리, 들을 거리가 가득해 사람들이 즐겼던 종합 예술이자 공연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가를 종합 예술이자 공연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밴드가 악단광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굿판이 아닌 클럽과 공연장에서 무가를 부르는 것이다.

악단광칠은 대금, 피리, 아쟁, 가야금, 장구, 바를 연주하는 6명의 전통악기 연주자와 보컬 3인방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악기로 음악을 구성하지만 EDM, 락, 펑키 등의 요소를 녹여내 무가를 악단광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다. 보컬들도 무속인의 복장을 현대화한 듯한 의상을 입고 적재적소에 안무를 포인트로 선보이며 관객의 흥을 돋운다. 만신 김금희 선생의 황해도 무가와와는 사뭇 다르지만, 신명나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그 옛날의 굿처럼 말이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던가? 2016년 뉴욕 공연을 시작으로 런던, 브뤼셀, 오스트라바 등 다양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북미 최대 음악 산업 박람회인 '글로벌페스트'에서 공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열기도 했다. 2019년에는 유럽 최대 음악 박람회인 'WOMEX'에도 참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악단광칠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신명을, 신명나게 전파하는 중이다.



사진제공. ©국립중앙극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월곡의 정신

월곡역사박물관·
월곡역사공원을 걷다

글. 편집부 장보람

사진. 편집부 윤종현

해설. 문화관광해설사 최계량

자료. 월곡역사박물관 제공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고즈넉한 공원을 품은 월곡역사공원에는 임진왜란 당시 뛰어난 전략과 강한 정신력으로 수천 명의 왜군을 무찔러 공을 세운 월곡 우배선 장군의 동상이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동상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는 우배선 장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월곡역사박물관이 있다. 우배선 장군의 업적을 알고 나면 그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란 걸 알게 된다.





월곡 우배선 장군 상

‘월곡’은 우배선 장군의 호(號)다. 우배선 장군은 1569년 경북 달성군 월배면 상인동(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와 유모의 손에서 성장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두뇌로 사물을 깊게 연구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다섯 살 때는 외가인 청도로 자리를 옮겼고, 1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7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화원읍에 진을 치고, 이웃 고을에 방문하여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지키자며 사기를 고취시켰다. 평민부터 노비까지 우배선 장군의 당당함과 리더십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비슬산 요로에 복병을 설치하고, 왜군을 격파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생생했던 현장을 기록한 『쇄미록(鎖尾錄)』에도 우배선 장군의 활약이 담겨있다. 명나라의 참군 여응중은 『조선기(朝鮮記)』에 우배선 장군에 대해 극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총명한 두뇌와 포용력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우배선 장군은 “비록 말은 바 관직은 없으나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조선을 위해 싸우겠다.”며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고 의병을 모았다. 그렇게 우배선 장군은 24살에 전국 최연소 의병장이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곽재우 의병장은 당시 41살이었다. 우배선 장군은 의병들과 함께 비슬산 장수동으로 들어가 말 타기와 활쏘기와 검술을 익혔다. 월곡역사박물관 2층 제1전시실에는 우배선 장군과 의병들이 직접 활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전시되어 있다. 우배선 장군은 화원현(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24세 젊은 서생이 온 몸을 바쳐서 싸운 결과 죽인 적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부대에서 공을 세우면 장수의 몫이고, 역사도 장수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우배선 장군은 15개월 동안 40여 차례 전장에 출전할 때마다 자신과 함께 싸운 의병들의 이름과 수, 그들이 죽인 왜적의 수를 기록했다. 기록된 의병들의 수는 89명이고, 그들의 손에 죽은 왜적의 수는 777명이라고 나와 있다. 의병들의 이름을 보면 양반의 이름은 없다. 대부분 노비나 평민이 쓸법한 이름이다. ‘충의에는 귀천이 없다’는 우배선 장군의 정신이 느껴지는 귀중한 사료다.

“충의에는 귀천이 없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앞에선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었다.
 우배선 장군은 의병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 1 월곡 우배선 장군의 동상과 월곡역사박물관을 품고 있는 월곡역사공원
- 2 월곡역사박물관 2층 제1전시실에 전시된 대구향교 왜군 본부 습격 과정 모형
- 3 임진왜란 당시 제일의 의병장으로 공을 세운 것을 기리기 위한 월곡우배선 창의유적비
- 4 월곡 우배선 장군이 관직을 그만두고 달서구로 내려와 학문을 강론했던 월곡정사



대구향교 왜군 본부를 습격한 일화는
우배선 장군의 전략이 돋보이는 일화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계가 느슨해 질 때쯤
날카롭게 공격한다.

1593년, 왜군은 대구향교 대성전에 주둔하여 망루(望樓)를 지었다. 남의 나라에, 그것도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술판을 벌이는 왜군의 행태에 우배선 장군은 분노하였다. 당시 우배선 장군의 노비 필금과 만애는 왜군에게 한 달 동안 잡혀 있다가 탈출한다. 두 사람은 우배선 장군에게 왜군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우배선 장군은 왜군들을 유인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경계가 허술해질 때 즈음 우배선 장군은 그 틈을 노려 독한 술을 빚어 평소처럼 안주와 함께 전한다. 독한 술에 정신이 혼미해진 왜군들은 하나 둘 씩 쓰러졌고, 우배선 장군은 의병들과 함께 쳐들어가 망루를 불태우고, 목을 쳤다. 왜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 과정 역시 월곡역사박물관 2층 제1전시실에 세 토막의 축소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모형이지만 과정이 극적이라 눈길이 간다. 큰 움직임 없이 치밀한 전략으로 왜군을 무찌른 우배선 장군의 활약이 돋보인다.

우배선 장군의 치밀한 전략이 돋보이는 대구향교 왜군 본부 습격

우배선 장군은 필금과 만애에게 술과 안주를 전하고 다시 왜군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필금과 만애가 왜군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배선 장군은 그렇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도망쳤던 필금과 만애가 돌아오자 왜군들은 두 노비를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한 노병이 나서서 막았다. 우배선 장군의 예상이 딱 들어맞았다. 그렇게 몇 번을 오고 가며 안주와 술을 주고 받았고, 왜군들의

월곡역사박물관을 품고 있는 월곡역사공원에는 임진왜란 당시 제일의 의병장으로 공을 세운 것을 기리기 위한 월곡우배선 창의유적비, 우배선 의병장이 평소 타고 다녔던 말을 기리며 세운 의미비가 있다. 월곡역사공원에서 200m 정도 나오다보면 우배선 장군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달서구로 내려와 학문을 강론했던 월곡정사도 볼 수 있다. 더욱 더 깊어질 계절, 월곡 우배선 장군을 기리며 그가 남긴 업적과 정신을 돌아본다.

나에게도 있는 특별한 능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보건교사 안은영>을 보며 느낀 슬픔과 위로에 대한 단상

글. 편집부 장보람 사진 제공. 넷플릭스





비비탄 총,
무지개 색 갈때기형
장난감 칼.

장난감이 아니냐고 코웃음 칠 수 있지만, 안은영에게는 젤리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은영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젤리를 볼 수 있다. 이 요상하고 신비로운 '젤리'는 '사랑'으로부터 탄생된다. 사랑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애로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다. 그중 우리가 쉽사리 마주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다. 바로 슬픔이다.

은영은 젤리 이면에 있는 슬픔을 마주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은영은 이해한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젤리가 된 죽음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로하는 법도 특별하다. '슬픔은 극복할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라는 상투적인 위로를 하지 않는다. 슬픔은 늘 있었고, 위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은영처럼 슬픔을 이해하기에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안은영도 마주했던 슬픔

명랑하고 쾌활할 것만 같은 은영도 슬픔을 마주할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할 때 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중학교 동창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특별한 능력 때문에 매일이 괴로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했던 은영에게 '다치지 말고, 경쾌하게 가라.'는 중학교 동창의 덩덤한 위로는 은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동창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경쾌하게 살아가던 은영의 앞에 '그림자 없이' 나타난다. 은영은 아주 오랜만에 본 친구처럼 대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리움'은 쉽게 떨쳐 낼 수 없었다. 수많은

죽음과 젤리들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살아왔지만 중학교 동창을 보낼 때 은영은 평평 울었다. 슬픔 앞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은영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슬픔을 마주하게 된 순간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젖은 내 모습이 너무도 잘 보인다.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와 사랑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아닌 거 같아 깜짝 놀란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정말 괜찮은 걸까?', '괜찮아도 될까?' 이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진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이럴 때마다 안은영처럼 장난감 칼로 내 주변에 있는 젤리를 털어버리고 싶다.



슬픔은 슬픈 것이 아닐지도 몰라

은영이 흰 가운을 펼리며 싸우는 젤리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이해가 되는 사연도 있지만, 먼 나라 얘기 같은 사연도 있다. 은영만의 유쾌한 방식으로 위로받는 젤리도 있는 반면,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젤리도 있다. 나쁜 젤리는 위로받지 못한 감정이라 거칠다. 은영은 그런 젤리를 향해 장난감 칼을 휘두른다. 젤리들은 은영에게 있어 괴로운 존재였지만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안은영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만큼은 분노와 후회 같은 감정이 동반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그 심정을 표현한다면 슬픔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조용한 방식이든, 조금은 요란한 방식이든 분명 이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슬픔은 슬픈 것이 아닌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을. 당신의 슬픔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아가자!

일반적으로 '슬픔'을 떠올리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그런 상황에는 하루가 슬픔이라는 독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슬픔에 대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이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엔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의 무게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겁다.

위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이 슬픔을 벗어날 수 있어', '빨리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슬픔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람마다 상실과 슬픔의 깊이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깊이를 이해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위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안은영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슬픔을 '함께' 하는 것. 즉,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마주할 수 있고, 곁에 있으면서 연결되어있음을 느낀다. 꼭 거창한 말이나 행동으로 위로해주지 않아도 된다. 슬퍼하는 사람이 충분히 슬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슬픔은 당신이 괜찮지 않거나 성숙하지 못했다는 표시가 아니다. 사랑이 당신 삶의 일부였으며,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기를 당신이 원한다는 표시이다.”

- 메건 더바인 『슬픔의 위로』 김난령 옮김, 반니(2020), p.103

※ 참고 도서

정세랑 『리커버 특별판 - 보건교사 안은영』 민음사(2020)

메건 더바인 『슬픔의 위로』 김난령 옮김, 반니(2020)



세계를 사로잡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 방탄소년단의 신곡 <Dynamite>가 공개되었다. 그룹 최초의 영어 노래이자 7~80년대 디스코를 기반으로 삼은 경쾌한 팝이다.

방탄소년단의 음악

글 차우진 대중음악평론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3,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은 이 노래는 한국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곡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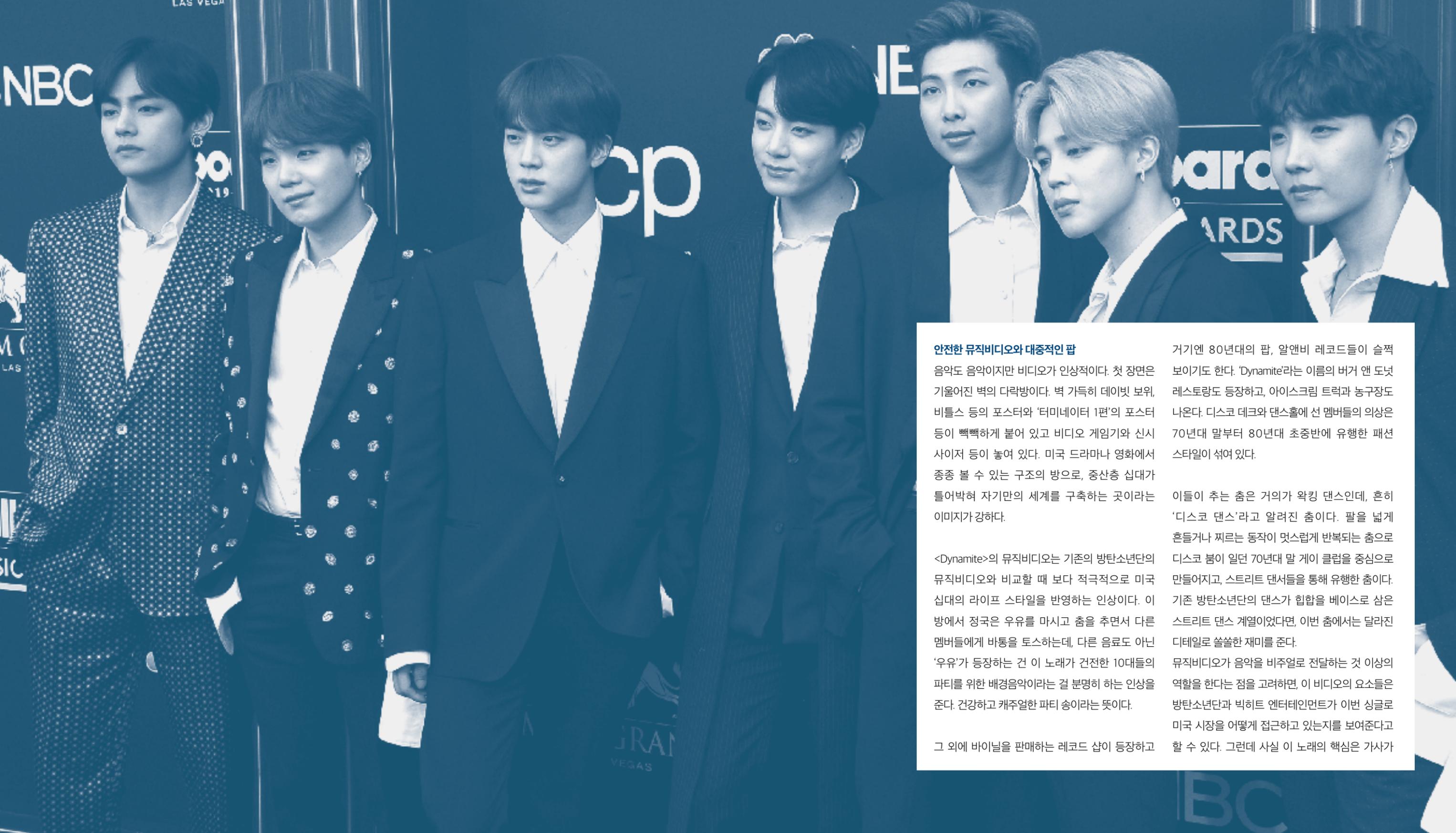




billboard
2019
MUSIC AWARDS



MGM GRAND
LAS VEGAS



안전한 뮤직비디오와 대중적인 팝

음악도 음악이지만 비디오가 인상적이다. 첫 장면은 기울어진 벽의 다락방이다. 벽 가득히 데이빗 보위, 비틀스 등의 포스터와 '터미네이터 1편'의 포스터 등이 뽀뽀하게 붙어 있고 비디오 게임기와 신시사이저 등이 놓여 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구조의 방으로, 중산층 십대가 틀어박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Dynamite>의 뮤직비디오는 기존의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십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인상이다. 이 방에서 정국은 우유를 마시고 춤을 추면서 다른 멤버들에게 바통을 토스하는데, 다른 음료도 아닌 '우유'가 등장하는 건 이 노래가 건전한 10대들의 파티를 위한 배경음악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인상을 준다. 건강하고 캐주얼한 파티 송이라는 뜻이다.

그 외에 바이닐을 판매하는 레코드 샵이 등장하고

거기엔 80년대의 팝, 알앤비 레코드들이 슬쩍 보이기도 한다. 'Dynamite'라는 이름의 버거 앤 도넛 레스토랑도 등장하고, 아이스크림 트럭과 농구장도 나온다. 디스코 데크와 댄스홀에 선 멤버들의 의상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중반에 유행한 패션 스타일이 섞여 있다.

이들이 추는 춤은 거의가 왁킹 댄스인데, 흔히 '디스코 댄스'라고 알려진 춤이다. 팔을 넓게 흔들거나 찌르는 동작이 멋스럽게 반복되는 춤으로 디스코 붐이 일던 70년대 말 게이 클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스트리트 댄서들을 통해 유행한 춤이다. 기존 방탄소년단의 댄스가 힙합을 베이스로 삼은 스트리트 댄스 계열이었다면, 이번 춤에서는 달라진 디테일로 쓸쓸한 재미를 준다.

뮤직비디오가 음악을 비주얼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디오의 요소들은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싱글로 미국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의 핵심은 가사가

영어로 된 방탄소년단의 첫 곡이라는 점이고, 그 때문에 이 음악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만들어낸 '효과'가 더 흥미로워진다.

<Dynamite>는 데이빗 스튜어트(David Stewart)와 제시카 아곰바르(Jessica Agombar)라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가 만들었다. 이들은 이제까지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나 헤일리 스타인펠드(Hailee Steinfeld)의 곡을 작업했다. 헤일리 스타인펠드는 14살에 주연을 맡은 영화 '더 브레이브'로 크게 주목받았고, 이후 '지랄발광 17세', '범블비'의 주연을 맡으며 셀러브리티가 된 배우로 최근에는 틴 팝(Teen Pop) 계열의 경쾌한 팝송을 발표하며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이 곡의 작곡가들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팝'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사례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에게는 바로 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팝'이 반드시 필요하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내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시발점은 2017년, DJ 스티브 아오키와 협업한 <MIC Drop>이었고, 2019년 할시(Halsey)가 피쳐링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도 영어권에서 방탄소년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순차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뮤직비디오와 영어 가사의 곡, 틱톡과 같은 SNS의 전략적 활용,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 방법론과 팬덤의 활동이라는 특징으로 '대중적인 팝'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시너지를 일으킨 셈이다.



빌보드 차트는?

1894년 11월 1일에 창간된 빌보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디어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서커스, 카니발 등 대중적인 공연 소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유료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영화와 라디오 소식을 실었고, 1930년대부터 음악 뉴스를 실었다. 지금처럼 음악에 특화된 차트로 바뀐 건 1960년대부터였다. 21세기에 음반에서 음원으로 소비 경향이 바뀌고, 벨소리부터 다운로드, 스트리밍으로 방법이 다양해질 때에도 빌보드는 이 모든 변화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며 적응했다.

그 중 '빌보드 200'은 피지컬 앨범 판매량에 음악 서비스의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단위로 환산해 포함하고, '빌보드 핫 100'은 스트리밍 서비스 추이,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에어플레이) 등을 반영해 집계되는 결과다. 라디오 방송 횟수는 2011년부터 1,214개의 방송국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참고로 미국에는 대략 9,000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한다. 2013년 이후부터는 매출(35~45%), 라디오 방송(30~40%), 스트리밍(20~30%)의 비율로 조정되었는데, 정확한 비율은 매주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젠틀맨>이 싱글 차트 2위에 그쳤던 이유는 라디오 방송 횟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싱글' 차트 진입은 그만큼 대량의 소비가 이뤄졌다는 뜻이고, 그건 기존의 팬덤의 조직적 활동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라디오 청취자는 보수적이고 관습적이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음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허들은 더 높다. <Dynamite>가 그 허들을 넘은 것은 팬덤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팬덤 밖의 대중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미국 혹은 글로벌 팝 시장의 관점으로 K-POP은 아직 대중성을 얻지는 못했다. 강력한 팬덤이 특징이지만 동시에 그 영향력이 팬덤 밖 일반인들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등 현재 팝 시장의 아이코닉한 지위의 스타들과 비교할 때 방탄소년단은 사실상 이제 막 인지도를 쌓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이룬 방탄소년단의 성과와 도전은 현재진행형 혹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달라진 음악 산업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여름, 유튜브로 자사의 비전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브리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음악 회사들과는 다른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핵심은 지적재산권, IP 기반의 콘텐츠 비즈니스다. 대중성을 넓게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광고 및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모델'을 가속화한다는 비전이다.

이때 중요한 건 시장 1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다. 그런데 팝 산업과 팬덤은 모순적이다. 관습적인 스타일이 강해질수록 결집력은 약화된다. 바로 이 점이 K-POP이라는 '장르'가 차지하는 위치다. 시스템의 내부에서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창작자들과 협업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기존과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낸다. <Dynamite>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하나의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미권 팝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영미권 팝의 뉴노멀 시대'가 K-POP과 함께 오고 있다는 신호다.

“흰눈깨비꽃”이
건네는 말

2020 노벨문학상 특집 칼럼

글 양균원 시인, 대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Louise Glück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루이스 그릭(Louise Glück)이다. 미국인이고 여성이며 시인이다. 국내 독자에게는 생소하여 이름 표기에서부터 혼란이 일고 있다. Glück은 모음 'u'에 움라우트가 있어서 그릭으로 소리 날 듯하지만 시인 자신이 [glick]으로 발음한다. 이 소리가 한 음절로 발화되고 [g]가 한 묶음의 초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글릭'보다는 '그릭'이 실제 음에 가깝다. 그릭은 1943년 뉴욕 태생으로 롱아일랜드에서 성장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했다. 1993년의 풀리처상 외에 2014년의 전미도서상 등 다수의 시문학상을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예일 대학 체류 작가로서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거주하고 있다. 열두 권의 시집과 두 권의 평론집이 있다.



그릭은 정확하게 사용된 일상어와 간결한 이미지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는 정서적 어조 등에서 특징을 드러낸다. 여러 평자들은 그릭이 자아의 직접적 분출이 아니라 자아의 통제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한다. 시인은 외적 권위와 내적 중심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세상과 자아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릭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고통의 순간을 들려주면서도 그것을 보다 포괄적인 인간의 문제로 확장시켜주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종래의 서정시에 새 가능성을 제시한다.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이 강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류는 전례 없는 격리의 시간을 알고 있다. 그 와중에서 들려온 노벨문학상 소식은 문학의 역할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문학은 상처 받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고립 속에서 창조의 열정이 뜨거워진 그만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시는 어떻게든 우리의 고통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흰눈깨비꽃

내가 무엇이었는지, 어찌 살았는지, 당신들은 아는가요?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에겐 겨울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땅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살아남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어요.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진 않았어요, 젖은 땅 속에서 내 몸이
 다시 응답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리라
 기대하진 않았지요, 그토록 오랜 시간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어떻게 다시 열릴지 기억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요,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들 틈에서 다시
 그래요, 라고 외치면서 기쁨의 위험을 무릅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

- 루이스 그릭

Snowdrops

Do you know what I was, how I lived? You know
 what despair is; then
 winter should have meaning for you.

I did not expect to survive,
 earth suppressing me. I didn't expect
 to waken again, to feel
 in damp earth my body
 able to respond again, remembering
 after so long how to open again
 in the cold light
 of earliest spring—

afraid, yes, but among you again
 crying yes risk joy

in the raw wind of the new world.

- Louise Glück

시의 제목 ‘흰눈깨비꽃’은 원제 ‘Snowdrops’를 번역한 것이다.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그 영단어는 대체할 우리말이 마땅하지 않은 듯 사전 상에 ‘스노드롭’으로 옮겨져 있거나 눈꽃이나 ‘설강화(雪降花)’와 같은 낯선 표현이 발견된다. 그렇지만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모양과 색채에 비유하여 지어졌을 꽃 이름이기에 그 뜻을 살려보려 노력한다. 흰 눈과 진눈깨비를 조합하여 ‘흰눈깨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본다. ‘깨비’라는 말의 어감은 작고 장난스러운 몸짓을 상기시킨다. 이 시는 그릭의 1993년 풀리처상 수상 시집 『야생 붓꽃』(The Wild Iris)에 실려 있다.

시의 화자는 시집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인 자신이 아니라 ‘흰눈깨비꽃’일 것이다. 꽃이 화자라면 청자 ‘당신들’은 누구인가? ‘당신’으로 단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이는 또한 누구인가. 독자일 수 있겠고 꽃이 처한 공간에 함께하는 다른 꽃들일 수 있겠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첫 읽기에서는 시인 화자가 ‘흰눈깨비꽃’(들)을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듯 다가온다. 경우의 수가 여럿이어서 해석이 다채롭게 열릴 수 있다. 시인 그릭은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돋보이는 시인들 중 하나이다.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에서 사람들은 신체적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과 상실의 대변자인 시인에게 위로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위로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선부른 위로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위 시에서 그릭은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을, 그 냉혹함 속에서 ‘그래요.’ 라고 긍정의 위험을 무릅쓰는 데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두 개의 ‘그래요.’(yes)가 요동치고 있다. 첫 ‘그래요.’가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을 인정하여 움츠러드는 몸짓과 함께한다. 그렇지만 둘째 ‘그래요.’는 위험을 무릅쓴 기쁨을 외쳐대면서 다시 ‘당신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결의와 함께한다.

코로나19는 현실이다. 대면에 의존해 왔던 인간관계의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질 일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은 아직 바람이 차가운 ‘가장 이른 봄’에 시작된다. 그 시기는 겨울에 가깝지만 꽃이 만개한 봄이 지척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겨울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겨울철 감염증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겨울 속에서 겪게 될 격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상실과 상처와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의 상실을 깊이 앎게 된다면, 그리하여 ‘겨울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공유하게 된다면, 혹시 서로에게 간절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가까스로 땅을 뚫고 나온 ‘흰눈깨비꽃’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래요.’는 ‘힘들고 두려워도 함께 다시 시작해요.’, 이런 속삭임이 아닐까.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나다!

DSAC 시그니처 시리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만
허락된 국카스텐과 디어클라우드,
Rock on Stage

글·사진
허정무,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팀

웃는얼굴아트센터의 특별한 기획공연
DSAC 시그니처 시리즈 첫 번째 공연
Rock on Stage
국카스텐X디어클라우드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시그니처 시리즈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단체를
초청하여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대형
프로젝트다. 올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차례 공연이 미뤄지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지난 10월 31일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Rock on Stage」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복면가왕’ 최다 연승 기록자이자 국내
최정상 보컬리스트 하현우가 이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 ‘국카스텐’과
3인조 모던 록 밴드 ‘디어클라우드’가
출연하여 10월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마음의 상처를 위로와 공감으로 치유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알려졌던 록 밴드
‘디어클라우드’는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

슬픔들 / 홀로 남겨진 듯 쓸쓸해진 마음들
/ 슬픔의 시간도 / 또 다른 기쁨의 시간도
너를 맴돌며 빛을 비추네’라는 가사를
가진 <See the light>를 시작으로 <너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 등 라이브 연주로
많이 접할 수 없었던 곡들과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사라지지
말아요>, <My dear>, <My lover>와 같이
디어클라우드만의 색채를 잘 드러내는
곡을 선보였다. 공연 후반 EP앨범 ‘Let
it shine’의 수록곡 ‘Polaris’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바꿨는데 단단한 드럼 연주와
베이스 연주의 호흡이 돋보였다. 마지막
곡은 2007년 발표한 디어클라우드의
1집 앨범 ‘Dear Cloud’의 타이틀곡 <얼음
요새>였다.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감상적인 비유로 표현한 노랫말과
애절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라이브 연주에서 들려주는 어쿠스틱
사운드와 강렬한 후렴구의 조화를
통해 디어클라우드의 음악적 색깔을 잘
표현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이어진 무대는 ‘국카스텐’이 채웠다.
국카스텐은 경이로운 음역대와 폭발적인
샤우팅, 압도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하현우와 몽환적이고
싸이키델릭한 사운드로 중무장한
밴드다. ‘복면가왕’ 방송 출연을 계기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국민밴드로 거듭나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국카스텐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객과 만나는 콘서트가
DSAC 시그니처 「Rock on Stage」였고, 티켓
판매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디어클라우드의 공연이 끝나고 국카스텐을

위한 5분여간의 세트 체인지 시간에
들어진 국카스텐의 <사냥> 뮤직비디오에
관객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마이크 테스트 후에 갑자기 연주하기
시작한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붉은 발>,
<매니큐어>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진 공연에
관객들은 환호성을 보냈다. 어렵게 이
자리를 찾아준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Your name>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팬들과
잠시나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곡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OST로 유명한 <돌덩이>. 청량한
기타 사운드와 하현우의 보컬은 관객들을
장악하기에 충분했다. <변신>을 시작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 호흡하며 함성을 지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함께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모든
관객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어진
곡은 <도둑>이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편곡하여 들려주었는데, 하현우는
이번 곡이 마지막 곡임을 설명하는 것조차
잇을 만큼 몰입하며 관객들과 콘서트를
즐겼다. 두 곡의 앵콜곡 <거울>, <쌈>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 에너지틱한 음악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마음껏 뛰며 콘서트를
즐겼다.

지친 일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로
해주는 ‘디어클라우드’와 ‘국카스텐’
모두 관객들에게 자신들만의 색깔을 잘
드러내며 호평을 받았고, 100분 동안
이어진 「Rock on Stage」는 관객의 환호
속에 마무리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DSAC 시그니처 시리즈의 첫 공연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별함이 가득한
DSAC 시그니처 시리즈의 행보에 더욱 큰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코로나 블루, 나를 돌아보며 삶=앓=읽기+쓰기

글·사진
박영빈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2020년은 고난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팬데믹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가족문화센터도 상반기 이후 8월 말 또 한 차례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하여 휴관을 하고 10월 중순부터 계획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일상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생겼다.

이럴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해보면 어떨까.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엄마인 내가 '엄마'로서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엄마인가.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에게 바라기 전에 나는 아이가 바라는 엄마인가. 따라서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가족아카데미 하반기 특강 주제를 '내가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로 정해보았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율이 52.1%로 조사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안 읽는 책을 내 아이에게 읽으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읽으려면 왜 읽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10월 23일,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아카데미 명사초청 특강으로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전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읽기와 쓰기를 진행하였다.



읽기, 지식과 삶의 연결

“제가 최근에 동의보감을 다시 읽었는데 세상에, 읽는 글귀마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옛날에 그 책을 읽었는지 문장마다 밑줄이 짝짝 그어져 있더라구요.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경험들을 통해 깨달음이 생긴 거지요. 어떤 책을 읽느냐, 몇 권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읽고 까먹는 건 정상이에요. 읽고 또 읽으면 됩니다. 지식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하는 거죠.”

쓰기, 배움의 정점

“지금은 대중지성 시대예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이끄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끄는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말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SNS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쓰기를 생각하고 읽으세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써야 생각이 정리되면서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글쓰기야말로 배움의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한 몸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활동이자 삶의 토대임을 잊지 마세요.”



읽고 쓰기의 달인 고미숙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럭저럭 특강도 하고, 팟 캐스트도 하고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강의 시간 즈음 흰 마스크를 낀 채 단출하게 백팩 하나를 매고 등장했다.

고전평론가로 잘 알려진 고미숙은 지난해에는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를 출간하였다. 누구나 잘 읽고 잘 쓰기를 바라지만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읽기와 쓰기.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고 쓰면서 터득한 그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삶=앓=읽기+쓰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고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책을 읽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취미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요. 취미활동을 그렇게 오래,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책이 바로 삶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산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지도와 같은 거죠. 거기서 답을 주잖아요. 살고 싶으면 알아야죠. 알고 싶으면 읽어야죠. 읽었으면 써야해요. 그래야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읽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함께하는 시작, 나의 경력이

이어지다

글·사진
김민경_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경력단절을 넘어 경력이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여성특화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으로 '여성의 꿈이음'을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회계·세무 전문사무원 양성과정



현장맞춤형 보육전문인력 양성과정



새 출발, 새 일(Job)을 잡다!

재도약을 꿈꾸는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을 운영하여 경력 공백 기간 동안 몰랐던 나의 재능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사무원 양성과정과 한식 조리·급식 실무과정을 통해 FAT·TAT, 한식조리기능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생 개별 맞춤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진행, 성공적인 경력전환과 직무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전, 성공하는 경력 쌓기!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발굴, 현장 맞춤형 보육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실버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진으로 구성된 강사풀과 현장 사례 중심 교육내용, 기업체 현장실습 진행 등 전문 직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빠른 적응이 가능한 여성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내 여성들의 전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기 능력 계발의 기회와 취업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 취업지원 기관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37(달서가족문화센터 3층)
- 상담/문의 053-219-2019
- 홈페이지 <http://www.dscf.or.kr>
-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ds2019>



실버통합돌봄 양성과정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
의병장 월곡 우배선을 조명하다.

창작뮤지컬 <월곡>

글·사진 허정무_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팀

임진왜란 당시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우배선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 <월곡>
웃는얼굴아트센터는 DSAC 프로덕션 사업으로 달서구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임진왜란 당시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자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 <월곡>을 제작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첫 자체 제작 뮤지컬인 <월곡>은 2년의 기간을 두고 제작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5일(토)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리딩극 형태로 첫선을 보이고 완성된 작품은 2021년 8월경에 관객들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월곡 우배선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대구지역을 근거지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고 선무 원종공신에 책록된 인물이다. 이번 뮤지컬은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조명하고 의병들의 애국정신과 애환을 담은 휴먼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역사적 인물과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며 혁이, 월이 등 가상 인물을 통해 극을 풀어나간다. 흥미롭고 빠른 전개와 스토리 라인과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로 이제껏 문화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우배선 장군의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려 한다.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월곡역사공원'에는 대한민국의 보물 1334호로 지정되어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성주화원의의병군공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군공책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공 보고서로, 우배선의 의병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전개 과정, 전투 기술적인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작 뮤지컬 <월곡>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월이', '혁이' 등의 가상 인물을 통해 극을 풀어나간다.

지역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과 캐스트

향후 달서구를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인 만큼 제작진 구성에도 큰 공을 들였다. 제작 총괄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이 맡고, 연출 손호석, 극본 손수민, 작곡 진주백, 음악감독 구지영, 의상디자인 이수진, 제작감독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허정무 등 각 분야에서 지역 최고의 실력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애산>, <생텍쥐페리>, <북성로 이층집>, <이상한 나라 안이수> 등 다양한 창작뮤지컬로 대구 뮤지컬계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1월 4일 수요일,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지하 오피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의 라인업 또한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비 갠 하늘>, <가얏고> 등 다수의 지역 제작 뮤지컬에 주역으로 출연한 뮤지컬 배우 손현진이 우배선 역을 맡았다. 작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재개관 기념 뮤지컬 <깨어나는 전설 바데기>에서 덕이 역을 맡았던 전수진 배우가 월이 역을, 뮤지컬 <기적소리>,

<생텍쥐페리>, <마이선> 등에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선보인 뮤지컬 배우 박명선이 혁이 역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북성로 이층집>의 배우 이호영이 임진왜란 선봉에 섰던 무장 고니시 유키나가 역을 맡았고, 이지민(만애 역), 김선유(필금 역), 전석형(곽재우, 멀티남), 윤채은(멀티 여), 김창수(멀티 남), 정수환(멀티 남), 조성민(멀티 남)까지 지역의 우수한 뮤지컬 배우들이 뮤지컬 <월곡>을 빛낸다.

한 달 간의 연습 과정

11월 4일 수요일,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1음악실은 아침부터 연습 준비로 분주했다. 전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된 대본과 뮤지컬 넘버들의 악보들을 올려놓는 것으로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배우들을 맞이했다. 녹음된 가이드 음원과 대본을 바탕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첫 번째 연습이



- 등장인물 -

- **우배선(남, 20대)** 조선 중기의 의병장. 애국정신이 강하며 임진왜란에 일어나자 가재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여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의병을 모집한다. 용맹하고 저돌적이며 지혜롭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
- **월이(여, 10대)** 임진왜란으로 부모를 잃고 노비 생활을 하게 되고 길으로는 어린 듯 보이지만 강한 마음을 지녔으며 우배선 장군을 동경한다.
- **혁이(남, 10대)** 고아로 태어나 노비 생활을 하며 만나게 된 월이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물, 소신이 있으며 의지가 강하다.
- **고니시 유키나가(남, 30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자, 임진왜란의 선봉에 섰던 무장.
- **곽재우(남, 40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게 공헌한 장수. 우배선과 왜군 토벌작전을 논의한다.
- **필금/만애(여, 20대)** 우배선의 오래된 여종이자 노비.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며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우배선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강하다.
- **멀티남** 성필, 왜군 등 다양한 역할 소화



〈월곡〉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공연이 아닌 달서구의 대표 브랜드 뮤지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마무리되고, 매주 진행되는 연습을 통해 안정적으로 화음을 쌓으며 점차 작품 배역 속에 녹아드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작 뮤지컬〈월곡〉의 높은 완성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흑과 백의 조화, 수목화를 콘셉트로 한 의상과 영상들

올해 공연은 내년에 있을 디벨롭을 염두에 두고 대본과 곡 등 작품의 본질에 우선하여 제작을 진행하였다. 리딩극으로 진행하지만 작품의 재미와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가만히 앉아서 대본을 읽는 형식이 아닌 공연 장면에서 따라 출연진의 등퇴장과 연기가 동반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내년에 있을 본 공연을 미리 만나는 쇼케이스의 형태에 가깝다. 그리하여 이번 공연에는 타이틀 이미지를 함께 선보이고 평가받고자 한다. 캘리그래피로 그려진 타이틀 〈월곡〉과 흑과 백의 조화로 이루어진 수목화를 콘셉트로 한 영상들과 의상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이 12월 5일 토요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의상디자인 스케치

공공극장 제작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현재 지역의 많은 공립 극장들이 자체 창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연 후 브랜드화되어 관객들에게 매년 선보이는 작품은 드물다. 이는 부족한 창작 환경과 짧은 제작 기간으로 인한 완성도 저하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월곡〉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공연이 아닌, 달서구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공연

진행을 통해 창작 뮤지컬 〈월곡〉을 달서구의 대표 브랜드 뮤지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의 인물을 재조명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 스토리를 통해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부터 마니아 관객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년의 제작 기간을 통해 한 번 보고나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창작 뮤지컬 〈월곡〉을 목표로 진행되는 'DSAC 프로덕션 II'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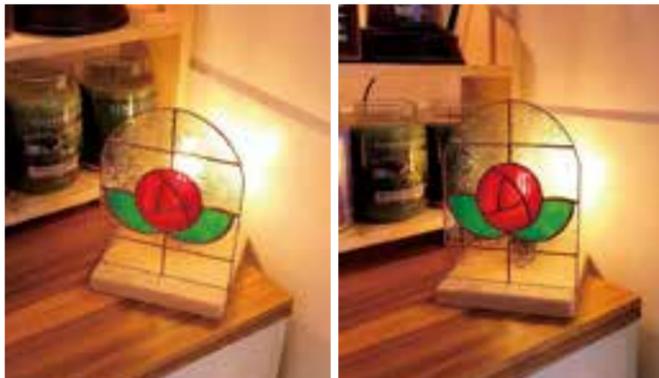
Arts Academy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 예술인문·취미특강 - 문의 053-584-8721, 8722

취미특강 Hobby Academy

겨울 빛의 정원
'동백꽃 램프'

일 정 2021. 1. 16.(토 1회, 14시)
수강료 1만원(재료비 4만 5천원)



취미부자의 겨울 예술 생활을 소개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계절, 겨울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집콕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에서 겨울 분위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따뜻한 빛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하며, 나만의 빛의 정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스테인드글라스 공예를 통해서 이번 겨울 집콕 생활의 완성이 될 동백꽃 램프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이경진
투제이 아틀리에 대표
• 전 세느어패럴 디자이너
• 현 투제이 아틀리에 대표

예술인문특강 Art & Humanities Academy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낸
'음악가의 삶'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2020년을 회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으로써 베토벤의 곡들로 수많은 공연들이 기획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곳곳이 음악활동을 이어나간 고전주의 음악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음악을 되짚어 보면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일정 2021. 1. 5. ~ 1. 26.(매주 화, 10시)
수강료 3만원(4회)



최훈락 피아니스트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Stuttgart Musikhochschule) 졸업
• 대구시 교육청 주최 콩쿨 전체 대상
• 제12회 이태리 국제 피아노 콩쿨 'Pietro Argento' 입상
• 피아노 솔로 앨범 '내 삶의 스케치(2015)'
• 미스터 블랙 'Romance(2016)', 'Insomnia(2019)' 발매
• 현 (주)스타엔터테인먼트 소속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

베르디·푸치니 오페라 여주인공 이야기
'여인의 삶과 사랑'

일정 2021. 1. 13. ~ 2. 24.(격주 수, 14시)
수강료 3만원(4회)

이번 겨울학기 이탈리아 낭만 오페라의 위대한 두 대가,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 속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아리아를 통해 느껴보며,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겨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영애 음악칼럼리스트
• 경북대 예술대 음악과 졸업
• 프랑스 파리 IV(소르본느) 대학 석사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부산대, 창원대 외래교수 역임
• KBS 대구 FM, CBS 대구, PBC 대구 방송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패널 출연, 조선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음악칼럼 기고
• 현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외래교수

뮤지컬 작품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일정 2021. 1. 7. ~ 1. 28.(매주 목, 14시)
수강료 3만원(4회)

뮤지컬 작품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세계 4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사사이공>, <레미제라블> 등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 <레베카>, <엘리자벳>과 같은 동유럽 뮤지컬 그리고 <명성황후>, <영웅> 등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까지 각 나라의 작품과 함께 세계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뮤지컬 탄생의 비하인드와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며, 주옥과 같은 명곡을 감상해 보는 세계여행에 초대합니다.



강연중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교수
• 충남대학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벽을 뚫는 남자, 문리버, 런투립 등 출연
• 연극 당통의 죽음, 지상 최고의 만찬, 카모마일과 비빔면, 의자는 잘못 없다 등 출연

미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화가들이 사랑한 프랑스의 소도시'

일정 2021. 1. 7. ~ 2. 18.(격주 목, 10시)
수강료 3만원(4회)

이번 겨울에는 화가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프랑스의 소도시와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화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고 휴식의 안식처였던 프랑스의 아름다운 소도시와 시골 마을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화가들의 자취와 그들이 남겼던 보석 같은 작품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골목길을 거닐며 화가들이 느꼈던 감성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작품을 통해서 프랑스의 또 다른 정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주 예술인문공동체
아르케 디렉터
•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철학과 박사
• 영남대, 금오공대 출강

유럽미술관 컬렉션 탐방 여행과
서양미술사

일정 2021. 1. 8. ~ 2. 19.(격주 금, 10시)
수강료 3만원(4회)

서양미술사의 명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유럽 각지의 미술관을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도판을 통해 그곳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품들의 미술사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겨울학기에는 주로 고전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들을 선택해서 유명 서양 고전 작품들과 역사적인 건물과 예술작품들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매력적인 장소들을 찾아봅니다. 미술관들의 개성적인 컬렉션들 속에서 명작들을 찾아 감상하고, 그것들을 소장한 배경과 작품을 탄생시킨 시대와 작가들의 삶을 살펴 보면서 명작에 대한 미의식을 함께 느껴봅니다.



김영등 미술평론가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 전 대구문화재단 이사
•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강사 역임
• 청년미술프로젝트 등 감독 역임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대구 근대 미술 산책(한티재, 2011) 외